

출·재가 IT교육...장소·때 가리지 않고 공부

“호주에 유학을 갔을 때 타향살이에 힘들어 인터넷으로 부처님 법문을 듣기 시작한 게 시작이예요. 인터넷으로 동영상 법문을 듣다보니 직접 스님을 보고 싶어 사찰에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절이 멀어요.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서 조계종 사이버 불교대학에 등록해 교리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설하셨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함께 그 변화를 받아 들여야 이 시대에 적응 할 수가 있다. 변화를 정확히 알아야 이 시대에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대중에게 전할 수 있는지 답할 수 있는 세상이다.

최근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은 인터넷을 손안에서 펼쳐지게 하고 있다. 바쁜 생활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 불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또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보다 쉽게 불법에 접하고 있다. 이에 맞춰 불교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교육원 승가고교 개편, 사이버강좌 도입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이 조계종 디지털 대학(www.edubuddha.net)으로 진행 중인 사이버 강좌는 스님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교육원은 2012년 승가대학 2~4학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개설했다. 이 사이버 강좌는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포교방법론, 불교와 사회 등 각 분야로 학인 스님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게시판에 강좌별로 평가를 올리고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강사와 수업 중에 든 의문을 중심으로 토론하기도 했다. 동영상 강의자료는 다운 받아 교재로 사용가능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원의 사이버 강좌의 성공은 산중에 위치한 지방승



아이패드를 이용한 청암사 승가대학 교육모습

가대학의 지역적 한계를 보완했기 때문이다. 교육원은 좋은 반응에 조계종 디지털 대학을 통해 1학기 진행된 동영상 강좌를 제공하는 한편 2013년 산스크리트어와 불어 동영상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지난 8월 17일 교수법연찬회를 통해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e-learning 강의운영법 교육도 진행했다.

승가대학도 이제 '스마트', 스님 호응 높아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는 9월 4일 승가대학과 율원에 승가 기본교육기관 최초로 전자수업 시스템을 도입했다.

청암사승가대학과 율원은 6개월여 동안 KT의 협조를 받아 초고속망 시스템을 구축해 경내 어



부처님오신날 sk텔레콤과 진행한 스마트미디어 체험행사에서 3D TV를 체험하는 동자승들

'스님도 스마트 공부' 사이버강좌 승가고육서 각광 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 등 불교양태도 IT 강좌 사이버 교육과 포교 인식 개선 과제로 남아

디서든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자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마트 캠퍼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고, 교수와 의견을 교류하는 양방향 전자수업 시스템이다. 청암사 스마트 캠퍼스는 과제물정보와 강의 동영상, 강의 자료를 볼 수 있는 강의계시판과 수업계시판 등이 구축돼 있다.

스마트 캠퍼스에 대한 학인 스님들의 반응은 뜨겁다.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 세상의 최신 트렌드를 익힐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주지 상덕 스님은 “세상에서 법을 전할 학인 스님들이 승가대학에서 소통법을 익힌다면 전법교화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젠 VOD 시대, 동영상이 대세

2010년 조계종 포교사대학과 조계종 사이버대학이 통합된 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은 사찰에서 기본교육을 받기 어려운 불자와 일반인들을 위한 대학으로 탄생했다. 이 외에도 일선 사찰도 인터넷을 통해 기존 불교대학 강좌와 법회를 일반불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는 봉은사 홈페이지(www.bongeunsa.org)를 통해 매주 열리는 법회를 동영상으로 중계한다.

또 불광사도 동영상 법문/강좌(www.bulkwangs.org/movie)란을 따로 만들어 법회 장면을 불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정도회의 경우 홈페이지(www.jungto.org)에 경전코너와 함께 기도방, 스님의 하루 등 신행 코너도 만들어 인터넷 강좌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자체적으로 사이버 대학(www.tvbuddha.kr)을 운영하고 있다. 대관음사 사이버 대학에는 대관음사에서 진행 중인 교리강좌가 진행된다.

이들의 특징은 동영상의 활용이다. 통신의 발달은 휴대폰 등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음성으로 법회를 중계하고 이를 교재와 함께 들던 사이버대학도 동영상에 실시간 채팅 등으로 변모하고 있다.

종립학교도 사이버 강좌 강화

종립학교도 사이버 강좌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논산에 위치한 금강대는 모든 강의실에 사이버강의의 시스템이 구축돼 강의실에 가지 않고도 국내외 저명학자나 교수

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 디지털 도서관이 구축돼 있어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e-book 서비스를 통해 도서정보 및 원문검색이 가능하다. 또 대학 최초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구축한 사이버교육센터 등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금강대는 최근 대전과 천안에 사이버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동국대 또한 사이버 강좌를 개설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무행정도 인터넷으로 한손에

조계종은 최근 회계와 신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통합 중무행정 프로그램 '가람지기'를 도입하고 있다. 2006년부터 서울 봉은사가 사용하던 '실크로드'를 개량해 1999년 조계종이 최초로 개발한 '가람지

기'를 대체한 프로그램이다.

범어사 수덕사 등 현재 114개 사찰이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신도 및 재정현황의 증감을 실시간으로 검색 가능하다.

또 불사 납입액, 명목, 신도 인적사항 등을 담고 있어 재정과 신도에 관한 정보를 처음에 정확히 입력만 하면, 특성화된 통계로 다양하게 산출할 수 있다. 포교 현장에서 축적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자료를 통해 맞춤형 포교가 진행 가능하다. 교차검색을 통해 직장 및 학교 등에 공통점이 있는 신도를 묶어 모임을 추천할 수 있다. 또 재정관리에서도 수입과 지출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또 종무원 간 업무공유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

사이버 포교 '돈 안된다' 인식에 방치

그럼에도 불교계의 사이버 환경은 개선점이 많다. 가장 큰 원인은 일선 사찰들이 소위 '돈이 안된다'는 인식이다.

아직까지 한국불교계는 재정적인 면에서 불자들이 직접 사찰에서 기도하며 내는 보시금에 의존하고 있다. 사이버 법회, 사이버 교육 등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제로 사찰에 오는 불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 일선사찰에서는 팽배하다. 주요교구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동영상 법회 등의 메뉴는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찰은 드물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한 법문 한구절, 스님의 동영상 한부분을 보고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쌍방향 소통이 진행되는 사람 뉘새나는 사이버 포교만이 불교의 미래”라며 “사이버 교육과 포교를 강화해 보다 많은 대중들을 불법의 세계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D 스마트폰으로 VOD를 보는 동자승들

반야동자 (12절)
3,000부 이상 @ **800** 원

- 200부 이상 @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보리심 (한지)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행복한하루 (탁상)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선(수첩)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 : 18장

연꽃향기 (미니)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 600
- 규격 : 8.9cm × 9.5cm
- 매수 : 16장

since 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선(수첩) 200부 이상 @ **650** 원

연꽃향기(미니) 200부 이상 @ **450** 원